

‘호로병’ 전도몽상에 대한 경계



성태웅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45 평정산 넘는 현장법사 일행

앞에서 서유기 이야기와는 상관없는 사실이 왜 그리 많았나?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원래 서유기가 그렇게 슬쩍 천기를 누설하는 그런 책입니다. 손오공 입을 빌어, 또는 보살님 입을 빌어 천고의 비밀 한 자락을 내비치곤 하거든요. 금각, 은각 대왕 만나기 전에 그 큰 대목이 있어서 그걸 보고 삼채선생이 흥이 났던 것이지요. 잠깐 소개해볼까요?

금각, 은각이 살고 있는 협한 산을 마주하곤 현장법사, 한숨이 터집니다. 사나운 짐승이나 요괴가 나올까 두려움에 떠는 거지요. 그 심정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가도 가도 안개만 더욱더 두텁게 끼니, 언제나 이내뎀 편안할 수 있으려나”

손오공이 깔깔 웃으며 대꾸합니다.

“사부님, 편안해 지는 것이 무에 그리 어려울까요? 공덕이 이루어지면 모든 인연 다 쉬게 되고, 삼라만상이 모두 공적해질 텐데, 그 때가 되면 자연히 편안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말에 현장법사 다시 환희심을 내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보면 손오공은 어떤 때는 철없는 망나니 같다가, 어떤 때는 불보살의 지혜 한 자락을 펼쳐 내는 대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중생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중생이지만 한가요? 그 두려운 중생상 속에 부처님의 지혜를 담고 있고, 그 지혜가 순간순간 빛을 발할 수도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가끔씩 터져 나오는 부처 지혜를 소중히 키워 나가려는 그런 당찬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친 보살께서 지은 불성론(佛性論)에는 부처님이 불성을 말하신 가장 큰 이유는 중생들이 자신을 가볍게 보고 태만하게 여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우리의 중생 모습을 반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속에 드러나는 부처 모습을 소중히 가꾸려는 자세를 갖자는 말이지요.

아무튼 그렇게 다시 힘을 내어 평정산을 넘게 되는데, 이 산에 사는 금각대왕, 은각대왕이라는 요괴는 정말 대단한 요괴인가보네요. 손오공이 천상세계를 발각 뒤집어 놓을 정도로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아는 요괴라면, 아무래도 천상과 조급증 연줄이 있는 요괴 아니겠어요? 당시에 천상 소식을 전하는 신문이 있었겠어요, TV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손오공을 잘 아는 이 요괴들 정체가 수상하다는 겁니다. 그런 나중에 드러날 것이니, 다음 회를 기대하시구요. 금각, 은각 형제 요괴 가운데 금각은 매우 신중하고 겁이 많은데, 은각은 좀 과감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손오공 잡을 계획을 들고 나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라는 것이, 앞에서 많이 봤던 요괴들의 수법이네요. 불쌍한

노인네로 둔갑하기, 예쁜 처녀로 둔갑하기... 그리고는 손오공 일행 앞에서 수작부리기. 현장법사의 장점이 단점인 자비심에 호소하여 틈을 노리는 수작! 그런데 그 뻔한 수작에 현장법사는 늘 걸려들지요. 이번에는 부상당한 도사 흥내네요. 현장법사는 손오공한테 엮고 가라하고, 손오공은 요괴의 정체를 눈치챘지만 예전처럼 단매에 때려 죽었다가는 또 파문당할 것이 뻔하기에 만수를 생각하네요. 그래서 슬쩍 뒤져다가 어디에 패대기쳐 죽일 공리를 하는데, 이 요괴도 눈치가 100단! 먼저 선수를 쳐서 무시무시한 술법을 부리는군요. 산을 옮겨와 손오공을 짓누르는데, 그 산이란 것이 또 엄청난 산들! 수미산, 그리고 아미산, 마지막이 태산이죠? 손오공이 두 번째 걸까지는 두 어깨로 너끈히 받아냈는데, 마지막 태산에 이르러서는 감당치 못하네요. 피를 토하고 쓰러진 손오공... 불쌍해라. 그렇게 손오공을 산으로 짓눌러 놓고는 현장법사와 사오정, 그리고 용마까지 몽땅 잡아버리죠. 그리고 현장법사 일행을 요리해 먹을 생각이 입이 찢어지는데, 아무래도 손오공이 맘에 걸리죠. 산으로 놀러 놓았다 하지만, 역시 맘이 안 놓여 줄개를 보내 마무리를 하려 하네요. 그 마무리를 위해 들려 보내는 병이 신기한 병이죠? 이름을 불러 대답을 하면 그 병으로 빨려 들어온다는! 정말 신통하고도 무서운 병... 그런데 서유기에 이런 보물 등장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이름에 대답을 하면 빨려 들어가 녹아버린다. 이 병을 통해 서유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당연히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건 짐작하시겠죠? 그런데 이름에 대답하면 왜 빨려 들어가요? 여기서 이름에 대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이름에 답하는 순간 빨려들어가 명예·공명심에 대한 주의 표현 인격 완성에 집중하는 것이 ‘불교’

것 같네요. 다시 한 번이라고 토를 단 이유는, 앞에서 손오공 이름 얻을 때 이름 이야기를 함참 했었기 때문이네요. 그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나칠계님? 혹은 생각하세요? 예구, 잘 나서시던 분이 이런 때면 왜 고개를 외로 꼬실까? 그렇지만 미안해하거나 겸연쩍어 할 필요 없어요. 나칠계님 같은 분 때문에 제가 언제나 보람을 느낀다는 거 아시나요? 실수로 전에 했던 이야기 또 해도 언제나 새로 듣는 듯한 반응을 보이시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전 그것이 나칠계님의 우수한 감각력 때문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같은 이야기에서 언제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내는 깊은 통찰력과 공감능력의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싶어요. 하하~

각설하고, 전에 이름 이야기는 이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지요? 그 때는 손오공이 막 이름을 얻었을 때이기에, 이름이 사람을 대표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한 것이지요. 이름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를 말한 것이겠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름에 대한 집착의 무서움을 말하는 대목 같습니다. 이름은 한편으로는 사람의 성격 형성이라든가 하는 측면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환경생 그 이름으로 불리다 보면 그 이름 자체를 자신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즉 이름과 자기를 동일하게 보는, 일종의 집착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측면에선 매



그림 · 최주현

의 특징을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해 볼까요? 이름은 언제나 어떤 존재의 특징적인 면을 강하게 부각시키지만, 반면 그 이름의 그늘 속에 많은 부분을 감춘다는 두 측면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대로 쓰면 좋지만, 이름에 매달리면 언제나 그 그늘에 가려진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알고 쓰면 좋지만 집착하거나 매달리면 세상의 참 모습을 가리는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에고, 말이 너무 어렵게 나왔나요? 철학하는 사람 티내는 거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질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앞에 계신 나칠계님을 예로 들어 가장 쉽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칠계님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흠... 가끔가다 이상한 질문하여 사람을 웃기는? 저팔계 님은 여러 가지 특징을 보이는? 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름을 통해 나칠계님이 가진, 남과 구별되는 특성을 확 떠올리게 되지요? 그런 점에서 이름은 매우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으로 떠올리는 나칠계님의 모습이 나칠계님의 전체적인 모습일까요? 좀 거시기한(?) 그 특징 말고 나칠계님의 전체적인 모습은 그의 이름의 그늘 아래 가려집니다. 그런 식으로 나칠계님의 이름을 통해서 받는 대표적인 인상만으로 나칠계님을 생각한다면 참된 나칠계님에 대한 올바른 앎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참된 나칠계님의 전체적인 모습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이름은 단지 가리키는 수단일 뿐인데, 수단이 수단으로 그치지 않으면 왜곡과 집착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왜곡과 집착이 심해지면 이름과 존재를 동일시하거나 신비한 연관성으로 맺어져 있다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의 이름인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심하고, 자신의 이름의 경우에는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렵다구요? 그럼 서유기에서 문제 삼는 점만을 중심으로, 가장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 이름을 빨간 글씨로 쓰면 안 좋다는 생각 가진 분은 없나요? 많은 분들이 끄덕이시네요. 그런데 왜 그렇지요? 이름과 자기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름 빨간 글씨로 쓰는 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나요? 고대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관에 새겨 놓고 그 관을 창이나 칼로 찌르는 방식으로 저주를 했다고 하네요. 이름과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요? 이러한 물음을 던져보면 이름에 대한 집착이 확실하게 드러나지요? 강도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나와 이름을 동일하게 보는 의식이 바로 이름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완성된 인격을 지향해 나가는 수행의 과정에서는 큰 장애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에 대답하면 빨려 들어가 녹아버리는 신비한 병은 바로 이름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수행상의 장애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손오공은 어떨까요? 이름에 대한 집착을 벗어났을까요? 그래서 신비한 보물 단지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혹 빨려 들어간다면 어찌될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세요.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음당 상군 → 원만당 석운

해동 불교 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 연등행렬

일시 : 불기 2560(서기 2016)년 5월 7일

- 오후 3시 ▶ 영천, 금호강변, 분수광장에서 영천불교연합회 사찰 문화행사 오픈
- 오후 4시 30분 ▶ 축하공연
- 오후 6시 ▶ 봉축법요식
- 오후 7시 ▶ 연등행렬

5월 14일(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영천불교연합회